

건축의 꽃 공공건축, 어떻게 선정할까?

글 · 구본준 bonbon@hani.co.kr

건축이 다른 문화 장르들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공건축이란 분야가 따로 존재한다. 미술에도 공공미술이 있지만 건축에서 공공건축처럼 중요하진 않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회 모두를 위한 공간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축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그리고 공공건축은 건축 문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한 나라의 건축 문화 나아가 문화 전반을 보여준다.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곧 공공 건축의 수준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일반 건축은 상업적 목적, 또는 건축주 개인의 취향과 용도가 강하게 반영되지만 공공 건축은 사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보다 더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서 짓고 문화적으로 더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공공건축은 진정 '건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공공건축물에 많은 시민들의 의

견을 반영하고 당대의 최고 건축가들에게 설계를 맡긴다. 반면 후진국일수록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의 취향에 집착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공건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축가는 어떻게 선정하며 어떻게 작업을 맡기게 될까?

건축가를 선정하는 4가지 방식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건축가를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 정도다. 각 방식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지으려는 건축물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다. 공공건축물의 목적과 규모에 맞게 적절한 방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공공건축의 모미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건축주가 지을 건물을 가장 잘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를 직접 골라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쾌한 방식이다. 건축가를 결정하기 전에 건축주가 건축가를 찾아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는 인터뷰 방식을 쓰는 경우도 많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퐁피두 센터 설계 공모를 통해 1971년 퐁피두 국제 공모에 참가했던 681개 작품 중에 이탈리아인 렌초 피아노와 영국인 리처드 로저스의 공동설계가 채택되었다.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문화 센터로 자리잡고 있다.

두 번째는 건축가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방법인 ‘일반 현상 설계’다. 건축주가 건축 계획을 밝힌 다음 누구나 설계안을 응모할 수 있게 해 그 중 가장 좋은 작품을 뽑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경쟁을 벌이되 적합해 보이는 건축가들을 몇 명 지명한 다음 이들에게만 설계안을 받아 그 중 최고작을 뽑는 ‘지명 현상 설계’가 있다.

네 번째는 흔히 ‘턴키(Turn-Key)’라고 부르는 방식이다. 건물을 짓게 될 시공사,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또는 설계법인)를 한꺼번에 세트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공사와 건축가가 팀을 짜서 프로젝트 전체를 도맡아 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에서도 결국 건축가를 선정해 건물을 짓는 것은 모두 이 네 가지 방식 안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

사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다. 건축주가 직접 건축가를 골라 계약하는 이 방식은 가장 간단하고 제대로만 이뤄지면 가장 효과적이다. 건축주가 자기가 지으려는 건물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건물에 가장 알맞아 보이는 건축세계를 펼친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를 고르면 현저하게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건축주가 건축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건축가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만 효과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주일 경우 특정한 건축가를 꼭 짚어 일을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공공건축에선 쉽게 적용되기 힘들다. 물론 미국처럼 사전에 건축가를 인터뷰한 뒤 선정하는 방식은 공공건축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실제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가의 평판에 대한

분석이다. 설계를 의뢰할 건축가를 미리 점찍은 다음 그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의 건축주들에게 건물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과정을 거친다. 인터뷰 과정에선 건축가가 자기 건축세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인 일반 현상설계, 흔히 일반 공모전이라고도 부르는 무제한 경쟁 방식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건축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꼭 효과적이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짓게 될 건축물이 어지간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건물이 아니면 건축가들이 많이 응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예들까지 달려들기 때문에 유명 건축가들은 일반적으로 참여를 꺼리기도 한다. 올해 한국 건축계 최고의 빅 이벤트였던 서울 소격동 기무사 터에 짓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처럼 국가를 상징하는 수준의 공공건축물들일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

이 현상설계 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응모작들이 수준에 못 미쳐도 응모작들 가운데에서 건물 설계안을 뽑아야 하는 점이다. 물론 건축주가 보기에 채택할만한 작품이 없으면 당선작을 뽑지 않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건축가를 정하면 된다. 하지만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반 현상설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세 번째 지명 현상설계다. 처음부터 건물 콘셉트에 맞는 건축가들을 여럿 지명해 기본 설계비를 지급하고 이들이 낸 작품 중에서 최고작을 뽑는 것이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대신 건축가들에게 설계비를 먼저 보장해 주면서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지금 가장 보편화되고 있는 방식이다.

네 가지 선정 방식 가운데 이 세가지 방식들은 저마다 달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검증된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용인 구갈의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아트센터의 건축설계는 2003년 430여 명이 참여한 국제 공모전의 당선작으로 이루어졌다. 애초 현상설계 당선작은 파격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국 건축계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설계안이 수정되어 지금 디자인으로 낙착됐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은 나쁘지 않지만 원래 당선안이 현실화되었으면 세계 건축계에서 주목받을 대단한 작품이 나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반면 네 번째 턴키방식은 적어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한 가장 문제가 되는 방식이자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 방식이다.

공공건축일 경우 시공업체와 설계자 그리고 감리자까지, 대형 민간건축일 경우 토지 개발업자와 전체 사업 재원 마련을 담당하는 파이낸스 업체까지 한 팀을 이뤄 진행되는 턴키방식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속편하고 간단한 방식이다. 건물 설계 따로, 건물 짓는 시공사 따로, 건물 신축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감리자까지 따로 일일이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꺼번에 팀을 짜서 들어오게 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건물의 자품질보다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민간 건축물에선 나름 선택할만한 방식이다.

하지만 턴키방식은 건물의 경제성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성과 건축의 문화적 측면을 중시해야 할 공공건축에선 현존하는 방식들 가운데 최악일 수밖에 없다. 공공건축물은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가 건축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민간 건축에선 경제적 문제로 보장하기 어려운 건축가의 창의성과 새로운 시도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공공건축은 지역과 시대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것이다.

한국 공공건축물 설계에 성행하고 있는 턴키방식

턴키방식은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고려되기가 어렵다. 턴키방식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따내고 그 일감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나머지 전문 분야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들로 골라 팀을 짠다. 건설업체와는 자본과 힘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건축가나 설계법인은 처음

부터 건설업체들이 짜놓은 판에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구조다. 창작자인 건축가가 제작자인 건설업체에 복속되는 이런 구조에서 건물의 예술성은 애초부터 논하기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공공건축물에서 이 턴키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의 경우 이런 턴키방식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을 짓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턴키방식은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21세가 되면서 그동안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취약했던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문화의 시대가 되었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건축 부문에선 문화적으로 심각한 퇴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건축이 국가의 문화적 상징이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는 시대에 거꾸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건축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나라가 '토건마피아' 들이 지배하는 '토건국가'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건설업체들로 대표되는 토건자본이 정치가와 공무원들을 각종 로비로 구워삶아 각종 공공 토목 건설 작업을 남발하게 만들고, 이들의 지원에 길들여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점점 토건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각종 공공사업을 몰아주고, 토건자본의 광고를 받아먹고 사는 언론들이 이런 토건자본들과 토건정치인들을 미화하고 지원하는 '토건동맹'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 토건자본들이 가장 손쉽게 각종 공사를 장악하고 주무르기 위해 만들어낸 술책이 턴키방식이다. 쇼핑센터나 아파트를 짓는데 턴키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야 어

떨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박물관이나 문화센터같은 공공건축물까지 이런 방식으로 짓는 것은 공공성과 문화적 측면으로 보면 실로 한심하고 심각하고 끔찍한 노릇이다. 공공기관들이 공공건축물을 턴키로 짓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건물의 실제 주인이 되는 시민들을 위해 최고의 건물을 짓기보다 여러 과정을 따로따로 계약해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다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다. 토건마피아들의 입맛에 맞게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공공건축이란 가장 크고 중요한 건축시장을 개편해주고 있는 꼴이다.

우리 공공건축에서 창의성 없이 무조건 동양 최대, 세계 최대를 앞세우는 규모만 키운 건물들만 남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반문화적인 행태의 대가는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정확하게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건축계에선 ‘턴키 망국론’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 1989년 파리를 상징하는 거대한 국립도서관의 설계자로 무명의 젊은 건축가가 임명되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건축가였던 도미니크 페로였다. 페로가 설계한 네 권의 책 모양의 건물 안에 단순한 형태의 거대한 중정을 가진 국립도서관은 지금도 파리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국내에서도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지명현상 설계에 당선되어 이화여대 캠퍼스 복합단지를 설계했다.



젊은 날, 공공건축을 통해 세계건축계에 데뷔한 건축의 거장들

세계 문화계에서 건축가들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다. 건축이 건물 자체의 의미를 넘어 이제 도시와 국가 전체의 문화적 수준과 힘을 보여주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장르로 영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스타 건축가들인 리처드 로저스, 렌초 피아노, 헤어초크 & 드 뫼론, 도미니크 페로 같은 주요 건축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젊은 나이에 공공건축으로 화려하게 세계 건축계에 등장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 유명 건축가들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 아이디어 하나만 좋으면 젊어도 창의성 넘치는 건축가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공건축이 등용문 역할을 해준 덕분이다.

결국 사회가 이들을 발굴해낸 것이다.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들은 이렇게 자국을 대표하게 될

주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국적과 경력을 가리지 않고 재능 있는 신예들에게 기회를 주어 건축사를 바꾸는 중요한 건물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설 새 없이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도 지금까지 자국 건축가를 단 한 명도 국제적 스타로 키워내지 못했다. 외국 건축가들에게 작품을 맡기는 경우



기무사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 당선작 이미지

올해 우리 건축계에서 가장 눈길을 모은 현상실계였다. 민현준 홍익대 교수가 주 설계자로 세이플리스 뮤지엄(형태없는 미술관이란 이름처럼 미술관 건물이 주인공이 되려하기 보다는 주변 배경과 맥락에 순응하는 건물을 지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에도 건축계의 인정을 받는 중요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공공건축물을 결정하는 공공기관과 정치가들이 공공건축에 대한 마인드가 전무하다보니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희극이자 비극이다. 선거로 당선되는 고위 공직자가 무조건 큰 건물 짓는 것이 공공건축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덩치가 크면 최고라는 생각으로 공공건축물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지어 자기 성과로 만드는데 집착하는 풍토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제 더욱 힘이 세진 토건마피아들이 이런 정치인들을 부추겨 공공건축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 그 대가는 오로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다.

공공건축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수준과 가치관,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울이다. 공공건축이란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비틀리고 촌스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다. 독재와 자본의 포악스런 지배 아래에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아온 힘은 민주화였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담아낼 민주화운동기념관만큼은 건축가들이 진정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제대로 된 공공건축 프로젝트로 기획되어 세계 건축사에 남을 한국 건축의 보배로 탄생되기를 바랄 뿐이다.

글 **구본준** | <한겨레> 대중문화 팀장, <http://blog.hani.co.kr/bonbon>